

##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1부 예배 재개:** 다음 주일부터

1부-12시 Teestube 소망방, 2부-14시 Mutterhauskirche

• **찬양대 연습:** 다음 주일부터 13시 Teestube 소망방

• **입학축하식:** 다음 주일, 대상자-채경준, 배지율, Duri Noah

• **교회창립40주년 기념 말씀일기 문집 원고:**

개인당 2~3편 9월 15일까지 배진우 님께

자녀들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방문:** 늘푸른교회 안영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방문 찬양연주 감사드립니다.

• **귀가:** 민경웅-박희영/채우,지음

• **생일:** 백수정

◆ **말씀일기 일정**

일/렘11:18-12:6	월/렘12:7-17	화/렘13:1-14	수/렘13:15-27
목/렘14:1-12	금/렘14:13-22	토/렘15:1-9	일/렘15:10-21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10독

◆ **예배위원 안내** ◆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예배기도	민경웅	한정우	이선영	서영지
말씀일기	서민규	배진우	오수향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이승열, 백윤정	김호정, 서영지		
애찬위원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밥상 여섯

40-31호

2023년 7월 30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모임 15시 30분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http://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	21장 .....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39번 .....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	81장 .....	다 함 께
기도/Gebet .....		민경웅 집사
말씀일기/Bibeltagebuch .....		서민규 집사
찬양/Chor .....	내가 주님을 .....	첼로 신주연 교우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 37:18-36 .....	인 도 자
설교/Predigt .....	숨은 손길 .....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549장 .....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늘푸른교회
방문특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은혜 - 리코더		성 도 들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 서민규 집사의 말씀일기 예레미야 11:1-17 '굳은살' ◀

청소년 시절에 처음 제자훈련이란 것을 받았다. 기도훈련을 하면서 처음 했던 것이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말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된 것이 왜 그리 많이 생각나는지 아파하다가 기도하던 그대로 잠든 적이 많았다. 그리고 그즈음 통기타도 배웠다.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손끝의 그 고통이 기억난다. 그런 아픔을 견디고 계속 기타를 잡으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손 끝에는 굳은살이 생겼고, 고통도 사라졌다. 심지어 송곳같은 것으로 찔러도 상처가 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8절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여기서 로마서의 말씀도 떠올렸다. 로마서 1장 21-23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아파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아픔에 적응하고 굳은살이 쌓여 더 큰 고통도 고통이 아니게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지만, 부모님의 귀찮은 잔소리처럼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과 고통의 시간은 사라지고 그저 반복되는 순간 속에 영적인 민감함은 사라지고 습관만 남아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 15절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찌자는 것이냐? 살진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의미없는 제사만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있는 것이었는지 마음속 깊이 뜨끔하게 된다. 굳은 살을 떼어내야 한다. 굳은살을 떼어내는 것도 고통이 있지만, 떼어진 그 부위는 한동안 아플 것이다. 하지만 회복하면 부드러운 살이 된다. 그리고 민감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다. 부드러워진 마음에 굳은살을 다시 덮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의 반창고를 덮어서,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매일의 삶에 말씀 앞에서 나를 비취보고 굳은살이 생긴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며 보내는 이 시간이 참 복되다. 굳은 살이 생겼던 부분은 다시 굳은살이 생기기도 쉬우니 열심히 살펴야한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자.